

2024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중견단체 확장지원 <펼쳐지는 꿈틀> 최종 심의평

본 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팀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뷰 심의에 선발된 단체와 프로그램은 고루 우수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최종 심의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단체별 철학과 신념 미적 감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반가웠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신 분들과 향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 본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첫째, 팀들 간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등에 부합하는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마을사업,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등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기획자,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참여자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배려 받을 수 있는 속도에 대한 감각과 시간의 안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넷째, 참여자 당사자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리서치가 충분하게 고려된 프로그램이 다소 적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섯째, 예술교육의 참여하고 지난한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를 참여자가 스스로 극복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통합지원 방식은 그간 단체들과 예술교육가들이 가진 독창성을 제한하던 경계들을 허물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향후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근본적 차별성 및 공통적 특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 등이 프로그램 내용에 녹아들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전합니다.

2024. 4. 18.

심의위원 강윤주, 김성하, 김월식, 김지나